

금산사 금강문에 대한 소고 (金山寺 金剛門에 대한 小考)

裴 秉 宣

(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차 례

- | | |
|---------------------|-------------------|
| 1. 머릿말 | 3.2. 金剛門 下昂系 栱包 |
| 2. 金山寺 金剛門의 建物概要 | 3.3. 下昂系 栱包 다른 實例 |
| 2.1. 金剛門 沿革 | 3.3.1. 花巖寺 極樂殿 |
| 2.2. 金剛門 建築樣式 | 3.3.2. 金山寺 彌勒殿 |
| 3. 金山寺 金剛門 下昂系 栱包形式 | 3.4. 小結 |
| 3.1. 우리나라의 下昂系 栱包 | 4. 맺음말 |

1. 머릿말

우리 민족은 선사시대로부터 이 땅에 정착하여 살아왔고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독자적인 목조건축양식(木造建築樣式)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 문화권(漢文化圈)과의 접촉과 불교(佛敎)의 전래를 통하여 새로운 외래(外來)의 건축양식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건축문화(建築文化)가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외래의 건축양식(建築樣式) 중 어떤 것은 우리化)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킨 자극제의 역할을 하였다. 지나간 우리 건축사(建築史)를 더듬어 보면 우리 민족은 외래의 문화를 점진적으로 충분히 소화하고 이를 우리의 것으로 발전시켜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건축문화(建築文化)가 외래의 것에 압도당하여 독자적인 건의 문화 속에 뿌리를 내려 동화되거나 유행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은 도태되어 점차 사라져 간 것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문화(文化)의 상대적 측면을 고려하면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 하겠다.

하양계(下昂系) 공포형식(栱包形式)은 수입된 외래의 건축문화(建築文化)가 우리의 것 속에서 동화(同化)·발전(發展)되거나 도태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의 하나라 할 것이다.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통해 필자는 이제까지 알려진 유일한 하양유구(下昂遺構)인 화암사 극락전(花巖寺 極樂殿) 이외에 금산사 금강문(金山寺 金剛門)과 미륵전(彌勒殿)이 하양계(下昂系) 공포(栱包)를 사용하였던 건물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이를 이 글을 통해 학계에 보고하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금강문(金剛門)

의 연혁(沿革)과 건축양식(建築樣式)을 살펴본 후 이 건물의 근세(近世) 하양계(下昂系) 공포형식(栱包形式)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2. 금산사(金山寺) 금강문(金剛門)의 건축개요(建築概要)

2.1. 금강문(金剛門)의 연혁(沿革)

〈금산사지(金山寺誌)〉에 실려 있는 1940년 중수(重修)시의 상량문(上樑文)과 중창기문(重創記文) 등을 참고하여 건물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 1) 조선(朝鮮) 명종(明宗) 11年(1556) 인언(仁彦)과 경휘(敬輝) 두 스님을 화주(化主)로 재건(再建).
- 2) 조선(朝鮮) 선조(宣祖) 39年(1606) 신행(信行) 스님을 화주(化主)로重修(중수).
- 3) 조선(朝鮮) 효종(孝宗) 2年(1651) 문익(文益) 스님에 의해 중창(重創).
- 4) 조선(朝鮮) 숙종(肅宗) 10年(1684) 하덕(賀德) 스님을 화주(化主)로 중수(重修).
- 5) 조선(朝鮮) 정조(正祖) 20年(1796) 대민(大敏) 비구니 등에 의해 중수(重修).
- 6) 1940년 보수(補修).
- 7) 1972년 중창(重創).

이상의 기록중 초창(初創)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런데 이 절이 원래 법상종(法相宗)에 속한 사찰로서 고려 혜덕왕사(慧德王師)의 시절에는 봉천원(奉天院), 대사구(大寺區), 광교원(廣敎院)의 3원(院)으로 경영되었던 사실이 있고 각 원(院)의 건물에 관한 기록 중에 금강문이 없던 점으로 미루어 금강문의 초창은 이 절이 선종사찰(禪宗寺刹)로 바뀐 조선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현재건물에 여러 시대에 걸쳐 수리된 사실을 보여주는 부재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이 건물의 중건(重建)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금강문은 정유재란시(丁酉再亂時)에 사찰이 회진(灰盡)되었을 시에도 소실되지 않고 유일하게 화를 면하였다고 하는데 귀공포에 사용된 □두형(□頭形)의 출목첨차와 간화(簡化)의 지법(枝法), 공포(栱包)의 배열방식 등으로 미루어 이 건물의 골격(骨格)은 명종대(明宗代)에 이루어진 듯하다. 그러나 효종대(孝宗代)에 와서 중창한 사실로 미루어 공포부분에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현존건물과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의 사진²⁾을 비교해볼 때 가장 큰 변화는 하양(下昂)의 유무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40년의 보수시에 일어난 듯한데 원래의 평면(平面)과 골격(骨格)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전후면의 공간포(空間包)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하양(下昂)을 없애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전혀 새로운 건물이 되고 말았고 우리는 귀중한 하양유구(下昂遺構) 하나를 잃게 된 것이다.

2.2. 금강문(金剛門)의 건축양식(建築樣式)

일주문을 지나 사찰경내를 향해 올라 계류에 걸쳐진 다리를 지나면 왼쪽에 금강문이 남향하고 있다. 당간지주의 밖에 위치하여 현재의 사역(寺域)과는 다소 떨어져 있으나

1) 文化財管理局 金山寺 實測調査報告書 362쪽.

2) 朝鮮古蹟圖譜 卷(권)13, 1932, 1822쪽.

대적 광전과 축이 맞아있다. 내부사방에는 금강정(金剛楨) 등(等)을 모셔 놓았는데 현재는 출입하지 않고 가람수호신당으로만 사용하고 있다.³⁾

외별대의 장대석 기단 위 네 귀에는 방형 주좌(方形柱座)를 잘 다듬은 커다란 초석(礎石)을 놓고 측면에는 자연초석(自然礎石)을 놓았는데 귀초석은 주좌가 83~86cm로 건물 규모에 비해 매우 크고 측면초석은 기둥단면에 비해 너무 작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외부에는 6개의 평주(平柱)를 네 귀와 측면에 배열하고 내부에는 2개의 방형 단면을 가진 고주(高柱)를 세웠는데 건물의 측면에 설치된 기둥 2개는 창방(昌枋)과 결구되어 있지 않으며 상인방(上引枋)이하에서 끊겨 하중을 분담하고 있지 않다. 정측면에서 화반(花盤)을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측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셋기둥을 후대의 중수시에 등근기둥으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둥은 민흘림으로 치목(治木)하였는데 컷기둥 중 전면의 2개는 최근의 보수시 갈아넣은 듯 하고 후면의 2개는 고재(古材)이다.

건물의 평면(平面)은 한 변 4.92M(16영조척(營造尺))의 정방형으로 도리칸은 단칸이나 보칸은 2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단칸의 건물에서 보를 걸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측면기둥이 하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고주(高柱)가 있어 이를 분담하고 있으므로 특이한 경우라 하겠다.

이 건물 평면상의 특색은 단칸규모의 선문(禪門)인데도 불구하고 내부고주(內部高柱)를 사용한 점이다. 내부고주(內部高柱)의 설치는 여러 각도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하양구조(下昂構造)의 뒷뿌리를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칸건물을 팔작이나 사모지붕으로 꾸밀 때 규모가 작으면 가운데 보를 걸어 해결하거나 서까래와 추녀를 내목도리와 외목도리 사이에 걸쳐놓아 상부와 처마의 하중을 지렛대처럼 이용한다. 그러나 금강문처럼 단칸으로서도 비교적 규모가 크고 하양구조(下昂構造)가 있으면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고정시킬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고주(高柱)의 양측에 금강상(金剛償)을 배치하고 가운데 통로를 낸 외문(外門)의 형식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나⁴⁾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는 지금과 달리 전면 홍살문의 왼쪽에 개구부를 두고 이를 통해 출입한 것으로 보아 후자(後者)의 형식이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지금과 같이 변형된 것이라 하겠다. 후면(後面)에는 빗살문 2짝을 달았는데 원래의 모습은 아닌 듯하다.

특이한 점은 네 컷기둥을 연결한 창방(昌枋)과 상인방(上引枋) 사이에 화각(華刻)한 대공을 둔 점이다. 현 건물의 벽체에 설치한 중방(中枋)은 벽을 상하로 나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하벽의 단청이 달리 칠해져 있는데 원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당시에는 없던 것이다.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는 내부사진이 없으므로 가구(架構)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현존건물의 가구를 보면 하양구조를 빼고는 당시와 크게 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구(架構)는 1고주(高柱)5량가(樑架)로 창방(昌枋)만한 단면의 들보를 고주(高柱) 위에서 맞보로 걸고 그 위에 등자주를 올린 후 중도리를 짜엮었는데 중도리 왕찌 사이에 중보를 걸치고 다시 판대공을 설치하여 중도리를 받쳤다. 측면의 형량(衡樑)은 들보 위에 주두(柱料)를 놓고 장혀와 맞닿게 올려져 있는데 일반건물의 층량과는 달리 들보에 직접 결구되지 않았다.

3)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362쪽

4)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362쪽.

이 건물에는 현재 컷보가 남아있지 않으나 컷보가 있었던 것 같다. 보아지 형태로 조각된 귀살미의 내단(內端) 3제공(諸工)이 네 귀에 남아 있으며 귀에 하양(下昂)이 사용될 경우 이를 받을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컷보가 있었다면 단칸 규모의 건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집의 가구(架構)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규모에 비해 부재(部材)의 단면은 매우 작고 가구방식(架構方式)과 공포(栱包)는 복잡한 기법을 사용한 점이다. <금산사사적(金山寺寺蹟)>에 따르면 이 절에는 원래 3원(院)의 가람(伽藍)이 구성되어 있었고 각 원(院)에는 20칸을 넘는 불전(佛殿) 뿐 아니라 각각 3층의 종각(鐘閣)이 있었다고 한다. 3층의 건물이라면 거의 탑과(塔婆)의 형태와 비슷하였을 것이다.⁵⁾ 현재 남아있는 3층의 건물로는 현 寺域(사역)의 중심이 되는 미륵전(彌勒殿)이 있는데 과거에 하양구조(下昂構造)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현(方等戒壇)의 앞쪽에 놓인 나한전(羅漢殿)은 비록 1941년에 지어졌으나 평면의 형태가 정방형이고 내부에 고주(高柱)가 있어 고층건물의 평면과 유사하다는 점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건물의 구기(舊基)에 3층의 종각(鐘閣)이 있어 방등계단(方等械壇)과 함께 미륵상생(彌勒上生)의 신앙을 펼친 봉천원(奉天院)을 이루었던 것 같다. 또하나 현 대장전(大藏殿)의 지붕 용마루에 남아 있는 목탑 상륜부(木塔 相輪部) 또한 탑과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금강문이 다른 집 특히 고층건물의 부재를 사용하여 새로 지었을 가능성을 추측케 한다.

천장(天障)은 가운데의 중도리 안쪽에 높은 소란반자를 걸고 중도리와 내목(內目)간에는 낮은 반자를 설치하여 층급천장(層級天障)을 꾸몄다. 선문(禪門)의 천장치고는 흔치 않은 구성이다. 내부에는 장마루를 깔았는데 이는 후대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원래는 흙바닥이었거나 전(塼)을 깔았던 것 같다.

현재의 처마는 건물에 비해 너무 짧아서 비례가 맞지 않는다. 하양(下昂)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나타난 당시 건물은 하양(下昂)을 설치함으로써 처마를 길게 내밀었고 출목수가 지금보다 많아 작은 규모지만 균형이 잘 잡힌 건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 금산사(金山寺) 금강문(金剛門)의 하양계(下昂系) 공포(栱包)

3.1. 우리나라의 하양계 공포양식(下昂系 栱包樣式)

하양계 공포는 원래 중국 육조시대(六朝時代)에 출목(出目)이 나타난 이후 이를 기초로 발전시켜온 공포형식(栱包形式)이다. 하양에 대해서는 윤장섭(尹張燮), 장경호(張慶浩), 신영훈(申榮勳), Nancy Shatzman 등 여러 학자들의 정의(定義)가 있으나 그 개념은 대동소이하다.⁶⁾ 즉 하양(下昂)은 ‘그 외단(外端)을 돌출시켜 처마를 받치게 하고 내단(內端)을 보나 도리에 고정시켜 지붕상의 하중을 바게 하여 두공(斗栱)을 지점(支點)으로 한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두공에 결구하는 사방향재(斜方向材)’라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무양계(無昂系) 공포보다 처마의 신출을 크고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공포(栱包)와 상부가구를 견고히 결구하여 지붕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5)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377쪽.

6) 朴大僑, 下昂에 關한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56쪽

장점을 갖고 있다.

중국(中國)에서는 송대(宋代) 이전에는 구조적 기능에만 충실하게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에 와서는 장식적 측면이 강하게 되었으며⁷⁾ 일본(日本)에서도 우리나라를 통해 도입하여 여러 변화를 거치며 근세(近世)까지도 사용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유물(遺物)에서만 단편적으로 볼 수 있을 뿐 현존하는 유구(遺構)가 없었으므로 고대(古代)의 건축에 사용된 구조법(構造法)으로만 추측할 뿐이었고 이에 대해 중요시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78年(년)에는 전북 완주군 소재 화암사(花巖寺) 극락전(極樂殿)에서 현존하는 하앙계(下昂系) 공포(栱包)가 밝혀져서⁸⁾ 많은 학자들이 이 공포의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 외에도 금산사(金山寺) 금강문(金剛門)과 미륵전(彌勒殿)이 하앙의 유구였음이 밝혀져 이 공포형식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반도에 수입된 목조건축형식(木造建築形式)은 처음에는 우리의 자생(自生)한 건축문화와 공존하다가 후에는 동화되거나 도태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앙계(下昂系) 공포형식(栱包形式)도 외래의 건축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일시적으로 流行(유행)되었다가 도태의 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백제(百濟)는 지정학적으로 중국(中國)과 가장 가까워 중국의 목조건축문화(木造建築文化)를 직수입하였던 것 같은데 삼국(三國)중에서 오히려 고구려보다 더 고급의 건축기술(建築技術)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⁹⁾ 살미방향이 길고 운형첨차(雲形檐遮)를 사용한 백제의 하앙계 공포는 사비시대(泗沘時代)에 중국 남북조의 양(梁)·진(陳) 등과 교류를 통해 수입한 문화이다. 하앙계 공포형식을 사용한 현존유구로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백제인의 소창으로 기록되어 있는 법룡사(法隆寺)의 금당(金堂)과 오중탑(五重塔)이 있고 유물(遺物)로는 부여박물관 소장의 천왕사지(天王寺址) 출토 청동소탑편(靑銅小塔片)과 간송미술관의 금동분감(金銅佛龕)이 있다. 백제 청동소탑편은 귀공포에서 45°로 단앙(單昂)을 돌출시켜 백제계(百濟系)의 초기하앙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7세기의 유구인 법룡사(法隆寺)의 금당(金堂)의 2층 귀공포에 사용된 하앙의 용례(用例)와 같아 주목된다.

그런데 백제건축에는 이러한 형식의 공포구조만이 쓰였던 것이 아니었고 하앙(下昂)이 사용된 것은 최신의 유행을 따른 것이며 호화롭고 대규모 또는 중층(重層)의 건물이었음에 틀림없다. 오히려 중소규모의 건물에는 백제의 초기 국가형성기 이후부터 영향을 받은 고구려(高句麗)계통 또는 북방계(北方系)의 무앙계(無昂系) 공포(栱包)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또 하앙계의 공포형식이라도 외장(外裝)만이 수입된 운형(雲形)의 첨차를 사용하였고 내부에서는 교두형 첨차를 사용하여 이 두가지의 형식이 서로 혼재되어 있었다. 일본 법룡사금당(法隆寺金堂) 및 오중탑(五重塔)을 보면 외부공포는 운형첨차를 사용한 초기(初期) 하앙계(下昂系)의 주심포(柱心包)를 사용하였으나 내부공포는 고구려 벽화고분의 공포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의 교두형 첨차가 채택되어 이러한 공존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백제식 초기 하앙계 공포는 삼국의 통일을 전후하여 신라(新羅)의 문화 말살정책의 실시로 통일신라(統一新羅)의 당식(唐式) 하앙계 공포와 고구려계의 무앙식 공

7) 朴大僞, 앞의 책, 7쪽

8) 張慶浩, 完州 花巖寺 極樂殿 調査報告書, 文化財 第12號, 46~56쪽.

9) 백제는 高層建物과 下昂系構造에 있어서 고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皇龍寺9層塔의 건립시 백제의 工匠 阿非知가 초빙되었고, 그 탑에는 下昂系 構造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포(無昂式 栱包)에 의해 일시적으로 밀려나 소멸된 듯 하다. 간송미술관 소장의 금동불감(金銅佛龕)은 귀공포에만 하양구조를 사용한 점이 특이하며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하양계 공포형식을 보여주는 예이다. 통일신라 후 이러한 당식(唐式) 하양계 공포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멸되고 일본에만 남아 발전하게 되는데 당초제사 금당(唐招提寺 金堂)은 당식(唐式) 하양을 사용한 3수선(手先) 공포(栱包)로 꾸며져 있다.

고려초기(高麗初期)에는 중국 송(宋)과의 교류가 커졌으므로 많은 건물들이 <영조법식(營造法式)> 과 같은¹⁰⁾ 하양식 공포로 지어졌을 것이라고도 추측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무양식 공포(無昂式 栱包)가 같이 쓰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크게 유행된 것으로만은 볼 수 없지만 일부는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고려말에는 북방계(北方系)의 다포 형식(多包形式)이 도입되었는데 하양(下昂)과 무양계(無昂系)의 중간쯤되는 가양(假昂)(쇠서)을 가지고 있어 화려하기는 비슷하나 하양구조와 같이 복잡한 결구(結構)를 이루지 않아 전국에 유행되었고 이는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와서도 계속 확산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地域)에 따라서는 당시 유행한 다포형식(多包形式)과는 다소 다른 지역적 의장(地域的 意匠)을 가진 건물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다. 그 중 내륙지역인 대구(大邱)일원과 양산(梁山), 산청(山淸) 등지에서는 외부에서 쇠서를 갖지 않은 무양계(無昂系) 다포형식(多包形式)의 건물이 지어졌고,¹¹⁾ 전라도 일원에는 특유의 예술적 감각으로 공포(栱包)를 장식한 다포건물이다 하양식 구조(下昂式 構造)를 사용한 건물들이 지어졌다. 화암사(花巖寺) 극락전(極樂殿)과 금산사(金山寺) 금강문(金剛門), 미륵전(彌勒殿)의 하양계 공포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3.3. 금강문(金剛門)의 하양계 공포(下昂系 栱包)

금강문의 공포(栱包)는 다포계(多包系)로 내외 2출목이며 네 우주(隅柱)위에는 귀공포를 넣었고 그 사이에는 간포(間包)를 두었는데 전면에 3구(具), 측면에 2구(具)를 배열하였다. 정방형 평면의 건물에서 전면과 측면의 간포수를 다르게 한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것이라 하겠다. 전후면의 간포(間包)는 1940년 중수시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데 살미외단(外端)과 같이 운궁형(雲宮形)으로 처리하였다. 각 출목의 교차부마다 쇠서를 둔 후기 건물과 달리 귀공포에 두형(頭形)첨자를 사용하여 간단히 처리하였는데 이는 고식(古式)의 기법으로 볼 수 있다.¹²⁾

금강문의 네 귀와 측면에는 전후면 간포(間包)의 형태와 다른 고식(古式)의 쇠서를 가진 공포가 남아 있다. 이 공포는 쇠서의 형태가 길게 아래로 뻗치고 그 끝이 날카로우므로 조선중기초(朝鮮中期初)의 것으로 보이는데 금강문의 공포를 인접한 지역의 조선중기 건물인 화암사 극락전(花巖寺 極樂殿), 위봉사 보광명전(威鳳寺 普光明殿)과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기록된 영은암 대웅전(靈隱庵 大雄殿) 등의 공포와 비교해 볼 때 쇠서 형태가 거의 동일하여 효종대의 중창(重創)은 공포를 바꾼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0) 李明仲, 營造法式 六卷 三十張 四十二, 下昂上昂出跳分數 第三.

11) 無昂系 多包佛殿의 例로는 雲門寺 大雄殿 및 觀音殿, 大悲寺 大雄殿, (이상 淸道) 棟華寺 極樂殿 및 須魔提殿, 銀海寺 百興巖 極樂殿 (이상 大邱) 松林寺 大雄殿, 大菴寺 大雄殿 (이상 □谷), 通度寺 極樂殿 (梁山), 栗谷寺 大雄殿 (山淸) 등이 있다.

12) 이러한 귀공포 구성은 서울 南大門, 安心寺 大雄殿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앙계(下昂系)의 공포에 있다. 1932년 간행된 <조선 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는 건물전경과 하앙(下昂)을 사용한 귀공포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하앙(下昂)은 건물의 사면(四面)과 네 귀에 모두 사용되었는데 살미 외단(外端)에는 2중의 앙설(仰舌) 위에 2분두(分頭)로 깎은 3제공을 올려 놓아 하앙을 받았다. 하앙의 단부형태(端部形態)는 상부를 빗깍은 모습이며 하앙이 받친 외목(外目)과 2출목(出目)간의 간격이 1~2출목간(出目間) 간격의 1.5배 가량 되고 그 사이를 순간천장으로 막았다. 귀에서는 유앙(由昂)을 쓰지 않고 다른 부분과 같이 3제공 위에 단하앙(單下昂)만을 써서 특이하다.

3.3. 하앙계 공포(下昂系 栱包)의 다른 실례(實例)

3.3.1. 화암사 극락전 (花巖寺 極樂殿)

화암사(花巖寺)는 완주군 운주면 가천리 소재의 불명산(佛明山) 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절이다. 이 절의 주전(主殿)인 극락전은 조선(朝鮮) 선조(宣祖) 5년(1572)에 중창(重創)되었는데 정유재란시(丁酉再亂時) 소실되었고 선조(宣祖) 38년(1605)에 재건(再建)되었다.¹³⁾ 이 건물에 쓰인 공포는 하앙계 다포(下昂系 多包)로 내외(內外) 3출목(出目)이며 하엽(荷葉)을 조각한 주두(柱料)를 사용하여 특이하다. 살미 외단(外端)은 2중의 앙설(仰舌)로 처리하고 그 위에 상단을 빗깍고 하단을 초각한 3제공을 놓아 하앙을 받았으며 살미 내단(內端)은 운궁형으로 처리하였다. 하앙의 형태는 전면에서는 그 끝에 용(龍)을 투각(透刻)하여 장식적으로 처리하고 후면에서는 끝을 뾰족하게 깎아 간략화(簡略化)하였다. 하앙이 받치는 외목(外目)과 2출목(出目)사이에는 커다란 순간천장을 대어 마감하였다. 하앙(下昂)의 뒷뿌리는 전후면 공포(栱包)에서는 중도리 장혀와 결구되어 있고 양측면 귀공포(栱包)에서는 고주(高柱)위에 올려져 있다.

1978년 화암사 극락전(花巖寺 極樂殿)의 하앙계 공포(下昂系 栱包)가 발견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그 건물이 옛 백제(百濟)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아니라 일본(日本) 및 중국(中國)의 하앙계 공포의 유례(遺例)와 세부가 다르므로 이를 부여박물관 소장의 청동소탑편(靑銅小塔片)이나 일본 법륜사(法隆寺) 당탑(堂塔)과 같은 백제의 하앙계 공포가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변화해온 것의 하나로 추정하였다.

목조건물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중 가구(架構)와 공포(栱包)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많은 부분이 변화하므로 건축사(建築史)에서는 그 형식의 변화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암사 극락전(花巖寺 極樂殿)의 하앙계 공포 역시 다른 지역의 것보다 비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백제식 초기하앙(初期下昂)의 구조적인 특징보다는 중국 송대(宋代)이후의 장식적으로 변화된 하앙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려(高麗)이후 도입된 계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식의 중앙구조(中央構造)와 달리 2중의 가앙(假昂) 위에 따로 사용되었고 또 하앙(下昂)이 장식화된 것이므로 외래의 하앙형식을 우리 것으로 동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3.3.2. 금산사 미륵전(金山寺 彌勒殿)

13) 文化財管理局, 完州 花巖寺 實測調查報告書, 1985, 116쪽.

금강문과 같은 사찰 경내에 있는 3층불전(層佛殿)인 미륵전 또한 하앙계 공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조선(朝鮮) 선조(宣祖) 30年(1597) 정유재란시(丁酉再亂時) 금산사가 왜병(倭兵)의 방화(放火)로 회진(灰盡)되었을 때 함께 소실되었다가 3년후인 선조(宣祖) 34年(1601)에 중건(重建)을 시작하여 인조(仁祖) 13年(1635)에 준성되었고 그 후 7차례의 중수(重修)를 거쳐 왔고 작년부터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이 건물을 완전해체하여 보수(補修)하고 있다.

미륵전의 공포는 내외(內外) 2출목(出目)으로 살미 외단(外端)에는 2중의 양설(仰舌)과 수설(垂舌)이 있고 내단(內端)은 운궁형(雲宮形) 또는 □두형(□頭形)으로 처리되어 있다. 1987年의 실측조사시 미륵전 1층 공포의 3계공 외단 전부와 2층공포의 3계공 외단 일부가 사절(斜切)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쇠서를 새로 만들어 붙인 것이 보고되었고 그 각도로 보아 그 위에 하앙(下昂)이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¹⁴⁾

최근 해체수리시 필자가 확인한 결과 1층의 3계공 외단(外端)은 모두 사절(斜切)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쇠서를 따로 만들어 위에서 축으로 고정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외목도리 장혀의 일부에도 하앙의 각도와 비슷하게 경사지게 홈을 땀 부재가 섞여 있고 주심도리 받침 중에도 앞쪽을 경사지게 만든 부재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하앙재(下昂材)는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1~2층부분에 이러한 흔적만이 남아있음으로 보아 미륵전이 중창(重創)되었을 당시에는 구조의 목적에서 하앙계 공포를 사용하였다가 후에 여러 번의 수리를 거치면서 공포결구(栱包結構)의 복잡함을 피해 이를 없애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기에 와서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장식적 측면으로 사용한 현상과 상통된다. 그런데 미륵전(彌勒殿)에 하앙(下昂)이 설치되었을 경우의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보다도 처마가 더 길게 돌출되었고 출목수(出目數)도 많아 훨씬 화려하고 장중한 외관(外觀)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4.3. 소결(小結)

화암사 극락전(花巖寺 極樂殿), 금산사 금강문(金山寺 金剛門), 금산사 미륵전(金山寺 彌勒殿) 등에서는 모두 下昂系 栱包(하앙계 공포)가 사용되었는데 이들 건물에 사용된 공포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보면 세 건물은 위치도 가까울 뿐아니라 하앙계 공포를 사용한 시기가 거의 비슷하나 하앙(下昂)의 장식성과 3계공의 형태 등 세부(細部)로 보아 금산사 금강문(金山寺 金剛門)의 것이 가장 앞선 시기의 하앙구조(下昂構造)라 볼 수 있다.

14) 文化財管理局, 金山寺 實測調查報告書, 107쪽.

표-1 하양계 다포건물 비교표 (下昂系 多包健物 比較表)

	화암사 극락전 (花巖寺 極樂殿)	금산사 금강문 (金山寺 金剛門)	금산사 미륵전 (金山寺 彌勒殿)
년 대(年代)	조선 선조 38년 (1605) (朝鮮 宣祖 38年)	조선 명종 11년 (1556) (朝鮮 明宗 11年)	조선 인조 13년 (1635) (朝鮮 仁祖 13年)
규 모(規模)	3칸×3칸 단층불전(單層佛殿)	1칸×2칸 단층선문(單層禪門)	5칸×4칸 3층불전(層佛殿)
공포형식(栱包形式)	하양계 다포(下昂系 多包)	하양계 다포(下昂系 多包)	하양계 다포(下昂系 多包)
출 목 수(出目數)	외(外) 1+2내(內)3	외(外) 1+2* 내(內)2	외(外) 1+2* 내(內)2
제공외단(諸工外端)	2중 앙설(仰舌)	2중 앙설(仰舌)	2중 앙설(仰舌)
제공형태(諸工形態)	초각(草刻)	2분두(分頭)	초각(草刻)
제공내단(諸工內端)	운궁형(雲宮形)	운궁형(雲宮形)	□두형(頭形)+운궁형(雲宮形)
지붕형태(形態)	맞 배	팔 작	팔 작
하양사용(下昂使用)	전후면	전후면+귀	1-2층 전후면+귀 **
하양형태(下昂形態)	전면 : 용(龍)투조 후면 : 빗깍기	빗깍기	빗깍기 **

* 현재는 변화되어 이와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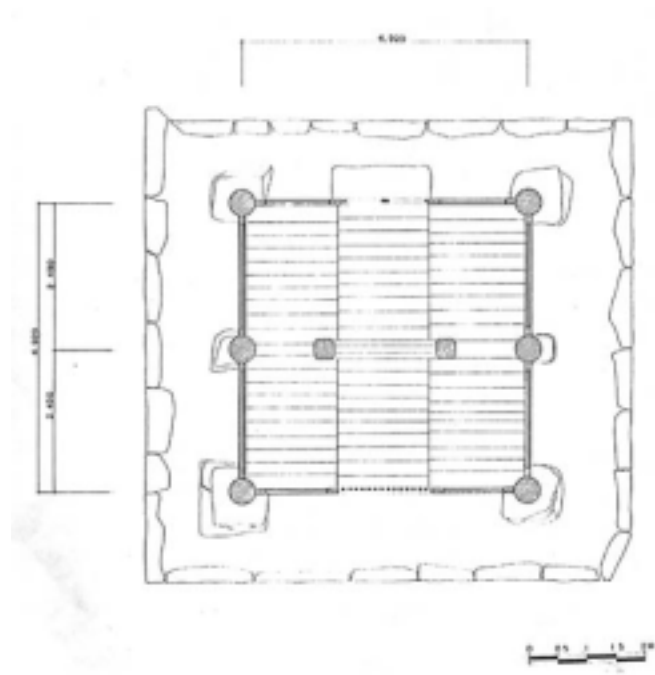
** 추정

4. 맺 음 말

이상과 같이 금산사(金山寺) 금강문(金剛門)을 중심으로 연혁과 건축적 특징 및 하양계 공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금강문의 하양계 공포(下昂系 栱包)의 특징을 요약하면 가양(假昂)과 하양(下昂)을 혼용한 형태로 보아 백제식의 초기하양보다는 후기의 하양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하부에 두공(頭工)을 쓰고 중앙(重昂)을 사용한 중국의 하양계 공포(下昂系 栱包)와 다르므로 하양계 공포형식이 우리의 것과 동화되고 정착한 과정을 보여주는 유례이며 하양계 공포를 사용한 건물 중 가장 앞선 연대의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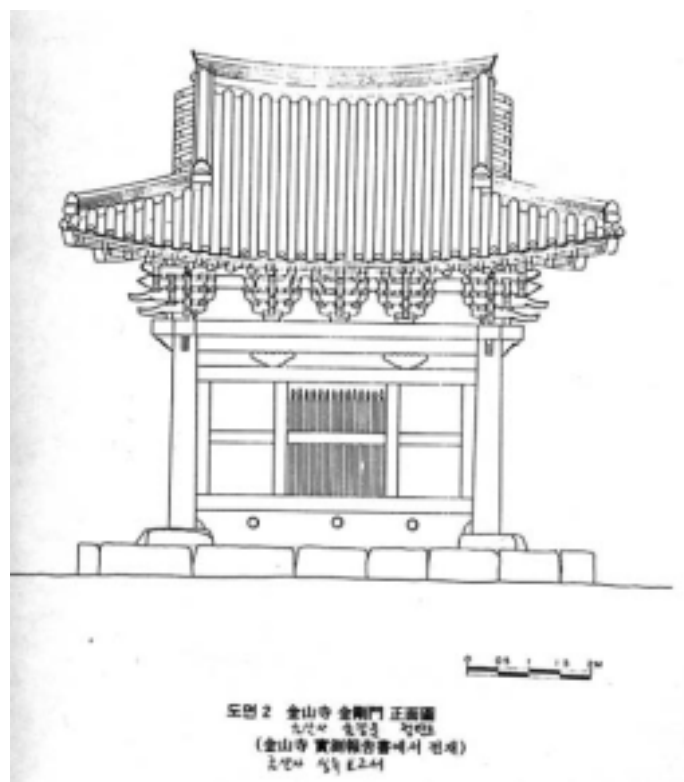
그런데 화암사 극락전, 금산사 금강문과 미륵전 등 하양구조(下昂構造)를 사용한 건물이 왜 이 지역에서만 나타나는가가 의문이다. 몇 가지 가능한 추리를 해보면 첫째로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중국(中國)과 가장 가까워 선진기술(先進技術)이 쉽게 도입되었을 것이며 다우다습(多雨多濕)한 기후상 이러한 구조가 계속 되었을 수 있다. 또한나는 금강문(金剛門)이 일반적 구조가 아니라는 가정(假定) 하에 이 하양계 공포형식(下昂系 栱包形式)이 다층건물 또는 특수구조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어 사용되었던 것이 후에 장식화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의문들은 앞으로는 하양(下昂)의 유례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이 방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면 확실하게 규명되어질 것으로 믿는다.



도면 1 金山寺 金剛門 平面圖
 (金山寺 實測報告書에서 전재)
 金剛門 實測報告書

도면 1 金山寺 金剛門 平面圖 (金山寺 金剛門 平面圖)
 (金山寺(金山寺) 實測報告書(實測報告書)에서 전재)



도면 2 金山寺 金剛門 正面圖
 (金山寺 實測報告書에서 전재)
 金剛門 實測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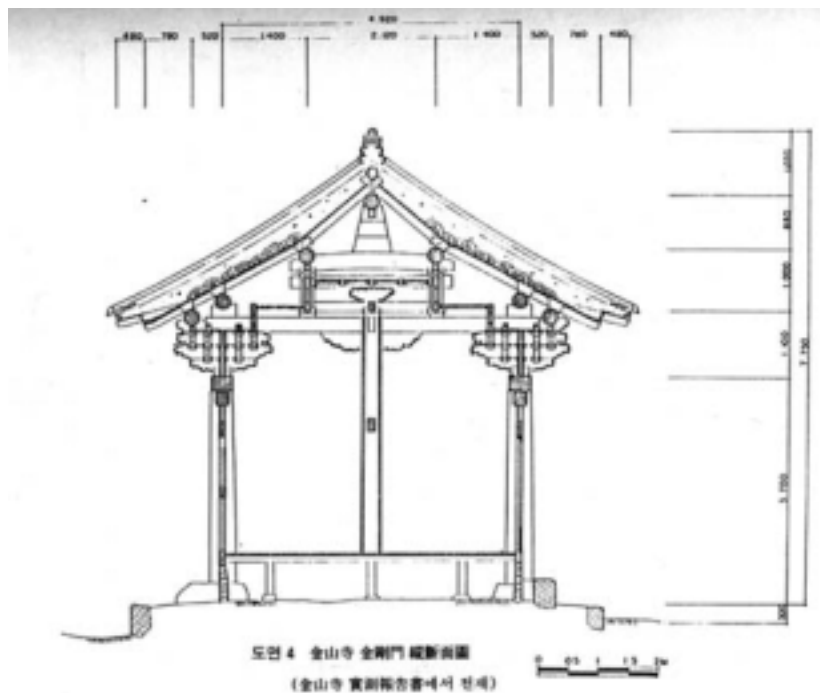
도면 2 金山寺 金剛門 正面圖 (金山寺 金剛門 正面圖)

(금산사(金山寺) 실측보고서(實測報告書)에서 전재)



도면 3 金山寺 金剛門 側面圖
(金山寺 實測報告書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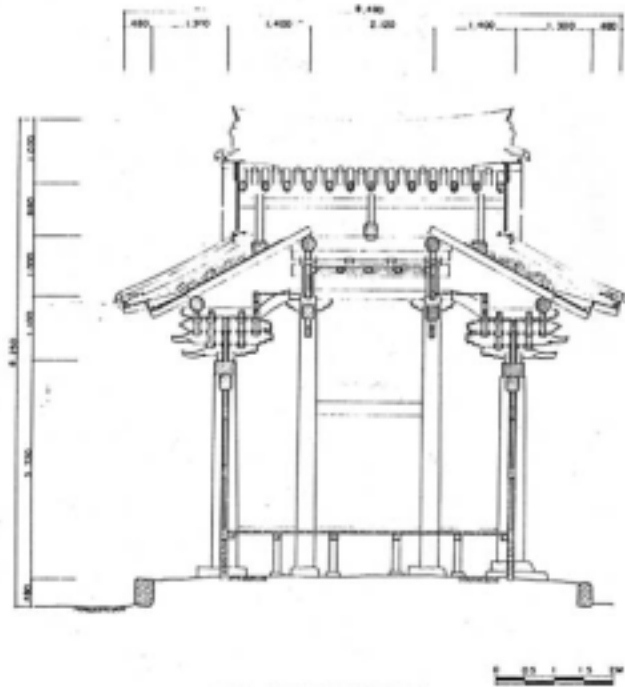
도면 3 금산사 금강문 측면도 (金山寺 金剛門 側面圖)
(금산사(金山寺) 실측보고서(實測報告書)에서 전재)



도면 4 金山寺 金剛門 橫斷面圖
(金山寺 實測報告書에서 전재)

도면 4 금산사 금강문 횡단면도 (金山寺 金剛門 橫斷面圖)

(금산사(金山寺) 실측보고서(實測 報告書)에서 전재)



도면 5 金山寺 金剛門 橫斷面圖
조선사 古蹟 實測
(金山寺 實測報告書에서 전재)

도면 5 금산사 금강문 횡단면도 (金山寺 金剛門 橫斷面圖)
(금산사(金山寺) 실측보고서(實測報告書)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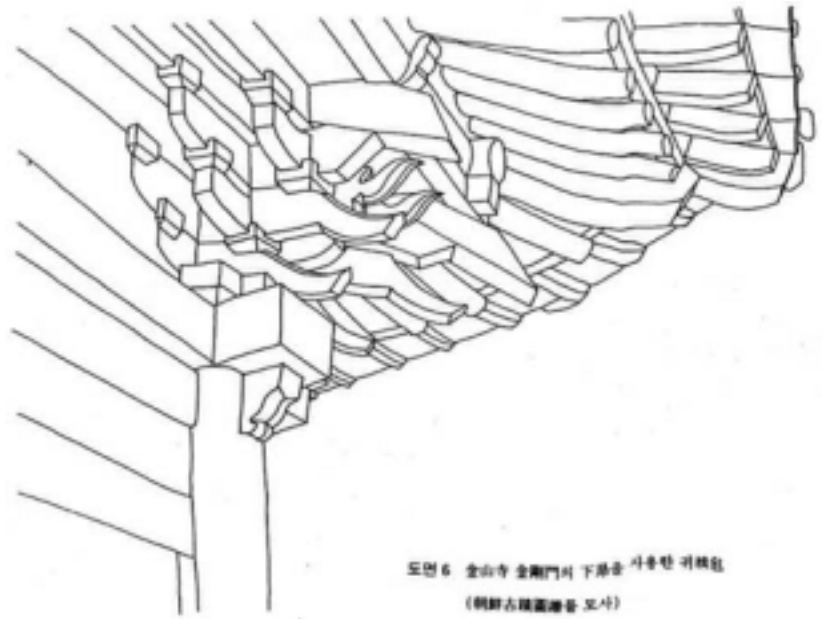
사진 1 金山寺 金剛門 全景 (朝鮮古蹟圖譜에서 전재)

사진 1 금산사 금강문(金山寺 金剛門) 전경(全景)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서 전재)



사진 2 金山寺 金剛門 全景 (1991년 촬영)

사진 2 금산사 금강문(金山寺 金剛門) 전경(全景) (1991년 촬영)



도면 6 金山寺 金剛門의 下昂을 사용한 귀공포(栱包)
(朝鮮古蹟圖說卷 四)

도면 6 금산사 금강문(金山寺 金剛門)의 하양(下昂)을 사용한 귀공포(栱包)



사진 3 金剛門 東側面

사진 3 금강문 동측면(金剛門 東側面)



사진 4 金剛門 北東귀栱包

사진 4 금강문 북동귀공포(金剛門 北東귀栱包)



사진 5 全剛門 内部架構

사진 5 금강문 내부가구(金剛門 内部架構)



사진 6 全剛門 귀공포 内部

사진 6 금강문 귀공포 내부(金剛門 귀공포 内部)



사진 7 日本 法隆寺 金堂 上層栱包

사진 7 일본 법룡사 금당 상층공포(日本 法隆寺 金堂 上層栱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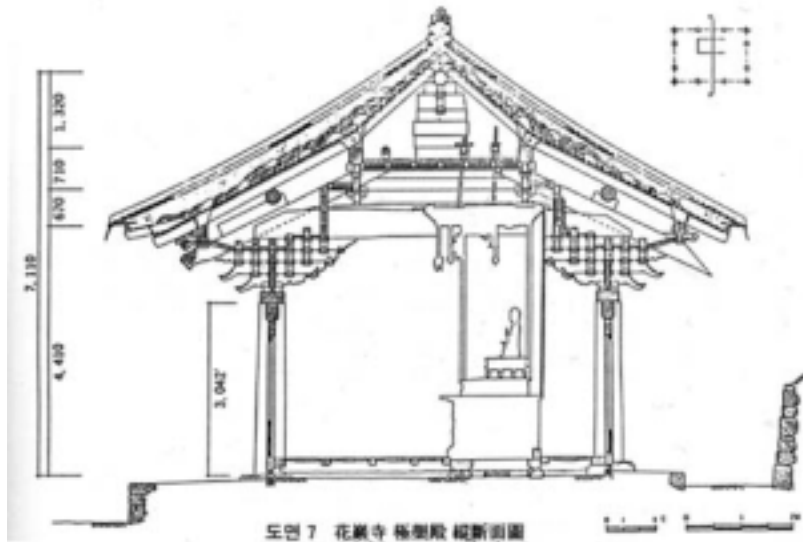
사진 8 扶餘博物館 소장 天王寺址 출토

사진 8 부여박물관(扶餘博物館) 소장 천왕사지(天王寺址) 출토
백제청동소탑편(百濟靑銅小塔片)



사진 9 澗松美術館 소장 金銅佛龕

사진 9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 소장 금동불감(金銅佛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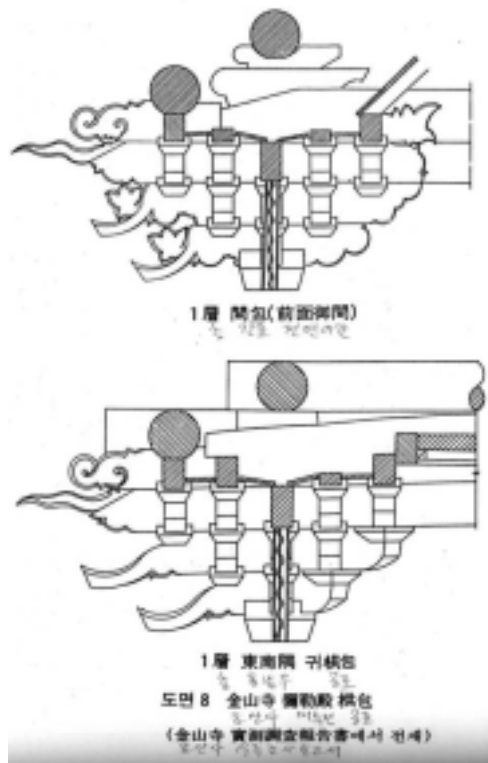
도면 7 花巖寺 極樂殿 縱斷面圖

도면 7 화암사 극락전 종단면도 (花巖寺 極樂殿 縱斷面圖)
 (완주(完州) 화암사(花巖寺) 실측조사보고서(實測調查報告書)에서 전재)



사진 10 花巖寺 極樂殿 前面 栱包

사진 10 화암사 극락전(花巖寺 極樂殿) 전면 공포(全面 栱包)



도면 8 金山寺 彌勒殿 栱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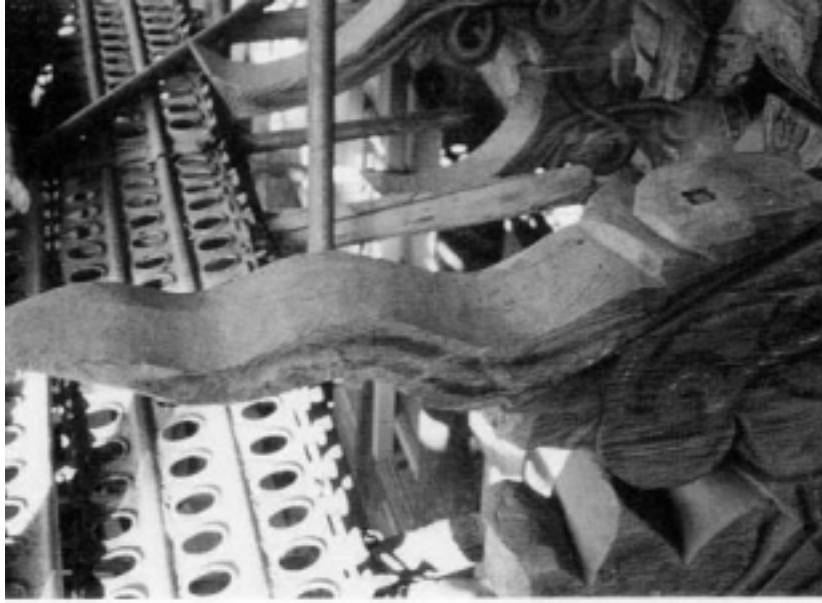


사진 11 金山寺 彌勒殿 一層拱包

사진 11 금산사 미륵전 1층공포 (金山寺 彌勒殿 一層拱包)